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도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이 다 현 · 전 용 덕

Prevalence of Hypothyroidism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Da hyen Lee, Yong Deok Jeon

National Medical Center Internal Medicine

목적: 만성 신장 질환에서 원발성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결절, 갑상선종, 갑상선암) 빈도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은 여러 역학 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아이오딘 과다 섭취국중 하나인 한국에서 신장 기능과 원발성 갑상선 질환 빈도의 정확한 관계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다.

방법: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립 중앙 의료원 건강 증진 센터를 통해 검진 받은 2201명,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외래에서 진료를 보았던 투석을 요하지 않는 만성 신질환 환자 54명, 2010년 국립 중앙 의료원 인공 신장실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64명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 사구체 여과율 (MDRD-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에 따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빈도를 구하였다. 원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신기능의 정확한 관계는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구하였다.

결과: 명백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도는 $GFR > 90 \text{ mL/min/1.73m}^2$ 환자에서 0.5%, 투석을 요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6.3%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또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9.002의 오즈비를 보였다.

결론: 명백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빈도는 투석을 요하는 신부전 환자에서 흔하며 신기능 감소에 따라 증가한다.

Key Words: 갑상선기능저하증, 만성신질환

Hypothyroidism, Chronic renal disease